

고(故) 최불암 배우 금관문화훈장 추서

- 67년간 무대와 안방극장 지키며 한국 드라마 성장기 이끈 ‘국민 배우’ 공적 기려

정부는 10월 29일(목)에 별세한 고(故) 최불암 배우(향년 87세)에게 ‘금관 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故) 최불암 배우는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67년간 연극과 드라마, 영화,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한결같이 국민 곁을 지켜 온 배우다. 한국형 수사극의 시초로 꼽히는 <수사반장>에서 18년간 박영한 반장을,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양촌리 김 회장을 연기하며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성장기를 이끌었다.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한국의 아버지상을 그려낸 고인은 세대를 아울러 ‘국민 배우’로 사랑받았으며, 2011년부터 14년간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음식과 삶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무대 밖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힘썼다. 198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으로서 국내외 어린이 후원에 앞장섰고, (사)제로캠프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도왔다. 앞서 2014년에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30일(금),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유미 (044-203-3291)
		담당자	사무관	이준호 (044-203-3294)